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2013. 2

Manna of Choonghyun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음기 · 사도행전
구역예배 · 대학청년부 GBS

대한예수교
총회
충현교회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예수님과 동행하는 십자가의 길

Contents

- 8 매일성경묵상 욕기 8장 ~ 욕기 9장
- 12 1과 질문과 대답
- 20 매일성경묵상 욕기 10장 ~ 욕기 15장
- 28 2과 진실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십니까?
- 36 매일성경묵상 욕기 16장 ~ 욕기 21장
- 44 3과 위기의 상황에서
- 52 매일성경묵상 사도행전 1장 ~ 사도행전 6장
- 60 4과 스데반
- 68 매일성경묵상 사도행전 7장 ~ 사도행전 10장

2 February 2013

주 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	4 읍기 10장	5 읍기 11장	6 읍기 12장
10	11 읍기 16장	12 읍기 17장	13 읍기 18장 재의 수요일
17	18 사도행전 1장	19 사도행전 2장	20 사도행전 3장
24 제1차 학습세례식	25 사도행전 7장	26 사도행전 8장	27 사도행전 9장

March

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31	25	26	27	28	29	30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옴기 8장

2 옴기 9장

7 옴기 13장

8 옴기 14장

9 옴기 15장

14 옴기 19장

15 옴기 20장

16 옴기 21장

21 시도행전 4장

22 시도행전 5장

23 시도행전 6장

제5차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

제1차 청지기훈련

28 시도행전 10장

교회 주요 일정

2월 13일

재의 수요일(사순절 새벽기도 시작)

2월 21일~23일

제5차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

2월 22일

제1차 청지기훈련

2월 24일

제1차 학습세례식

나의 주요 일정

- ❶ 2013년 제1차 청지기훈련(2월 22일 금요일, 7시)에 모든 성도가 기도로 준비하여 참석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 ❷ 충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❸ 김성관 위임목사님을 복음의 나팔로만 사용해 주시고,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후임 담임목사님이 청빙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 ❹ 충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는데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 ❺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 ❻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 ❼ 1년 1인 1명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 ❽ 제5차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2월 21일~23일)가 민족 복음화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시고, 참석한 교회들이 십자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 ❾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❿ 충현교회의 재단들(유지, 동산,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진행 중인 시설 공사 및 양로원, 함양충현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십자가의 길

신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걸으셨고,
자신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도
이 길을 가야 한다고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중도에 포기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신자들의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다양한 위기의 상황이 있겠지만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십자가의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2013년 2월을 맞이하여 위임목사 김성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매일성경묵상

가정예배 · 구역예배 · 대학청년부 GBS

HOLY BIBLE

고난을 당하지만

욥기 8장

찬송가 336장

묵상노트

수아 사람 빌닷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3절)라 말하며 하나님은 불의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욥과 그의 가족이 당하는 고통은 그들의 범죄의 결과라고 말합니다(4절).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야 하고, 욥이 정직하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5~7절). 계속해서 빌닷은 조상들에게 얻은 지혜로 욥이 악한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8~10절). 빌닷이 주장하는 조상들의 지혜는 진철이 아닌 곳에서 자라는 왕골이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결국에는 아무런 희망도, 의지할 것도 없이 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11~19절). 빌닷은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않으신다는 논리로 욥을 악한 자라고 주장합니다(20절).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악한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좇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멸망에 이릅니다. 빌닷은 악한 자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신자들은 고난이 찾아올 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 고난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최후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

• 왕골(11절) : 이집트의 나일 강변에서 많이 자랐던 갈대과에 속한 식물인 파피루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욥 8:7)

Your beginnings will seem humble, so prosperous will your future be. (Job. 8:7)

기도제목

① 고난을 통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② 2013년 제1차 청지기훈련(2월 22일 금요일, 7시)에 모든 성도가 기도로 준비하여 참석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하나님의 주권

2

토요일

욥은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2~4절).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5~10절). 욥은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12절)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그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의로움으로 는 그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15절). 하지만 욥은 자신이 겪는 고통에 까닭이 없는 것이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탄식하며(17~20절)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무죄한 자산을 돌보지 않으신다고 불평 합니다(21~24절). 또한 그는 하나님이 정죄하시면 인간의 수고와 헛됨을 고백하며(25~29절)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서 자기를 변호해 줄 중재자를 찾습니다(32~35절).

욥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고 높으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의롭다 자랑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인생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하는 그 어떤 수고로도 구원의 한 조각도 구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고 선함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헛될 뿐입니다. 천하만국에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시며, 사람의 인생을 평안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평안을 얻기 원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평안을 네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요 14:27).

욥기 9장
찬송가 79장

묵상노트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욥 9:4)

His wisdom is profound, his power is vast. Who has resisted him and come out unscathed?(Job. 9:4)

• **빠른 배(26절)**: 직역하면 파피루스 배들, 이 배들은 폭이 좁고 길이가 긴 유선형으로 되어 매우 빠른 속도로 항해할 수 있었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내 삶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② 총천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복음의 은총으로 가득한 설날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전 10:14). 며칠 후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있습니다. 약간은 들뜬 기분이 있겠지만, 보혈의 은총을 입은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벧전 5:8).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는 곳에는 항상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출 32:4), 사사시대에다 우상 숭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삿 2:11~12).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도 우상 숭배였습니다(겔 5:9).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받으실 때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마 4:10).





그런데 설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민족 고유의 명절이라는 명분 아래 소위 도덕과 예를 강조하며 조상신 섬기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이 우상이 가득한 아덴을 향해 품었던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행 17:16). 또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도 새겨야 할 것입니다(엡 5:5). 신자에게 설날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난 날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 십자가를 더욱 붙들며, 복음의 은총으로 가득한 설날이 되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골 3:5).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3 주일

4 월요일

☐ 읊기 10장

5 화요일

☐ 읊기 11장

6 수요일

☐ 읊기 12장

7 목요일

☐ 읊기 13장

8 금요일

☐ 읊기 14장

9 토요일

☐ 읊기 15장

1

질문과 대답

Questions & Answers

| 초점 |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 찬송 |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찬송가 381장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 본문 | 시편 73:21~26

- ²¹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찢렸나이다
²²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²³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셨나이다
²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²⁵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²⁶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음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야 할 두 가지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누구에게 이 질문을 하든지 모두들 질문이 중요하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정말로 좋아하지 않고, 삶의 목적을 진실로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음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히 9:27

신자와 불신자 모두가 지금 이 곳, 이 세상의 삶의 올무에 걸려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기자인 아삽은 이 두 질문의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은 자신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과 이후에 주님이 자신을 영광 중으로 이끄실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잘못을 직시하자

자신의 잘못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시 73:21~22 _____

아삽은 진실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초점을 두면서 그는 스스로를 지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 시편 73:3~4, 11~12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삽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아삽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였고, 성소로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자신이 그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시 73:16~17 _____

롬 3:23 _____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시 73:23~24 _____

하나님의 임재는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만족보다도 더 큼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아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을 붙드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아는 지식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가끔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마 28:20 _____

히 13:5 /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_____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여러분은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교훈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 생각하시며 여러분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을 항상 인도해 주십니다.

영광의 약속을 붙들자

영광을 주신다는 약속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시 73:25~26

아삽은 천국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속 또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창 5:24

※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삽은 천국이 앞에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장차 최고의 순간이 온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제발 여러분의 시간과 힘을 지금 이 땅에서의 영광을 얻고자 애쓰는 데 낭비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바라보며 밝은 미래가 있음을 알 때에 분명 우리는 지금의 고통을 참아낼 수 있습니다.

요 14:6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영광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매일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천국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기를 지며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시 4:2 _____

요 14:1~3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자신이 죄인임을 매 순간 기억하며,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 ②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목적이 되게 하소서.
- ③ 우리 가족, 구역원(팀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illegible]

※ 설교 중에 받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으신 성도님은 간증문을 써서 (주간총현)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 552-8200(# 342, 348) / E-mail. psalms1715@naver.com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

욥기 10장
찬송가 374장

묵상노트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여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1절) 하며 욥은 자신이 악하지 않은데도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허물과 죄를 들추어내시는가 질문합니다(1~7절).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지으셨음을 기억해달라고 탄원합니다. 그는 자신을 만드시고 보살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8~12절). 그는 하나님께서 범하지 않고 악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자신에게 이런 형벌을 주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13~16절). 그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음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욥은 부르짖습니다(18~19절).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 전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그치셔서 잠시나마 평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20~22절).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욥 역시 다른 친구들처럼 전통적인 인과응보의 교리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친구들의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역시 다른 친구들처럼 하나님과 인과응보의 교리를 같은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뜻과 계획을 사람의 생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람의 생각으로 제한한다면, 우리는 이를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의 지혜를 버리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영긴 잿(10절) : 태의 상태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 태아의 형성과 발육의 복잡한 과정을 잿을 영기게 해 영긴 잿으로 만드는데 비유한 것이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욥 10:12)

You gave me life and showed me kindness, and in your providence watched over my spirit.(Job. 10:12)

기도제목

① 인간의 지혜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기도노트

죄와 불의를 버리라

5

화요일

나아마 사람 소발은 욥이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런 죄가 없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를 비난합니다(1~4절),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보다 높고 스올보다 깊고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시기에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으며,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고 계신다고 주장합니다(7~12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악과 불의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고 환난을 잊을 것이며 생명의 날이 대낮과 같이 밝게 될 것이며 심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13~19절),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며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20절).

소발의 주장은 인과응보라는 교리에 한정되어 있어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던 욥의 고난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소발과 다른 친구들이 주장하는 전통적인 인과응보의 교리로는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지만, 범죄한 사람이 징계를 받는다는 이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범한 죄의 대가를 오늘 받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자는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건 우리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와 불의를 버려야 합니다. 신자는 자신의 죄와 불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와 불의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회개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욥기 11장

찬송가 268장

묵상노트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욥 11:14)

if you put away the sin that is in your hand and allow no evil to dwell in your tent.(Job. 11:14)

• **돌이켜 세우기(12절)**: 여러 적은 사람을 지칭하는 관용적인 표현이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 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죄와 불의를 내어놓고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을 복음의 나팔로만 사용해 주시고,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후임 담임목사님이 청빙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욥기 12장

찬송가 430장

묵상노트

세 친구의 말에 욥은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 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라며 그들의 지혜를 조소합니다(1~3절). 그리고 악한 자가 형통하고 평안한 현실을 한탄하며(4~6절),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피조물들을 증인으로 내세워 주장합니다(7~12절). 모든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자연과 모든 권세도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사람의 말을 물리치시며 높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기도 하심을 욥은 알고 있습니다(13~21절). 그는 민족들과 권세자들의 모든 흥망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22~25절).

욥은 자신이 처한 고난의 상황을 통해 행한대로 보응 받는 인과응보라는 전통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조금씩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형통한 자라고 해서 다 의인은 아닙니다. 또한 주님은 악인을 심판하시지만 고난을 당한 사람 모두가 악인인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욥의 고난을 통해 주님이 인간이 정한 선악의 한계 안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혜나 권세도 주님의 생각과 판단을 넘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주님 앞에 항복시켜야 합니다.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주관하시도록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길입니다.

• **모세(17절)** : 조인하는 저 상담자들. 그들은 영행력 있는 계층을 형성하고 왕과 자리를 함께 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욥 12:13)

To God belong wisdom and power; counsel and understanding are his. (Job. 12:13)

기도제목

① 세상의 지혜와 권세를 따르던 죄를 버리고 나 자신을 주님께 항복하게 하소서. ② 총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라

7

목요일

욥은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라 말하며 친구들이 주장하는 고난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들을 자신도 알고 있다고 강변합니다(1~2절). 그는 그의 친구들이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이며 불의를 말하고 속이는 자라고 주장합니다(4~8절).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찰하셔서 책망하실 것이며 그들의 말은 자신들의 미비한 이론을 뒷받침하려는 격언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9~12절). 그는 자신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아뢴 것이며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합니다(13~19절). 욥은 일시적으로나마 자신이 의인이라는 주장을 포기하지만(23,25절) 그의 고난에 하나님의 훨씬 더 놀라운 목적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친구들처럼 자신이 젊을 때 지은 죄를 하나님이 추궁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20~28절).

욥은 죄 때문에 고난 받는다는 친구들의 전통적인 교리를 자신도 알지만 그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친구들의 비난은 그의 마음을 더욱 상하게 합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이 인과응보와는 다르다는 것은 알지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마치 숨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날은 주님께서 숨어 계시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욥기 13장
찬송가 135장

목상노트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욥 13:23)

How many wrongs and sins have I committed? Show me my offense and my sin. (Job. 13:23)

• 재 같은 속담(12절) : 아무런 가치 없는 혼한 교훈의 이야기 기증에 들어왔던 별로 설득력이 없는 무가치한 것들을 말한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신뢰하게 하소서. ②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8

금요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

욥기 14장
찬송가 280장

묵상노트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 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욥은 인생을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을 눈여겨 보셔서 재판하시는 것에 대해 한탄합니다(1~6절). 이어서 그는 나무는 찍혀도 다시 움이 나지만 사람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존재라며 탄식합니다(7~12절). 욥은 주의 진노가 잠잠해질 때까지 자신을 숨겨 주시기를 간구하고(13절), 또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그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결심합니다(14~15절). 그리고 허물과 죄악을 봉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요청합니다(16~17절). 하지만 무너지는 산과 옮겨지는 바위와 물로 인해 닳은 돌처럼 희망이 없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행동도 취하실 뜻이 없는 것을 알고 비판합니다(18~22절).

인생에 대한 욥의 생각은 옳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짧고 허무합니다. 만약 사람이 그 짧은 인생에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영원히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서 범죄한 인생을 징계하시지만 주님께로 돌이키면 허물과 죄악을 사하시고 죄로 인해 다친 상처를 만지시고 싸매어 주십니다(호 6:1). 주님의 용서는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이 열렸습니다. 죄인들은 주님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자들은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혹 우리의 삶이 여전히 곤비하고 하나님께서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 하더라도 비판하지 않고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 기다리시겠나이대(15절) :
은을 상징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동사. 갈망하다, 간절히 바라다, 간절히 어떤 사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는다는 뜻이다.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대(욥 14:17)

My offenses will be sealed up in a bag; you will cover over my sin. (Job. 14:17)

기도제목

① 희망 없는 인생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며 따르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9

토요일

엘리바스는 욥의 대답이 무익한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욥 자신의 입으로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1~6절), 더 지혜로운 연장자들이 있음에도 욥이 혼자 지혜로운 척한다고 비난합니다(7~10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을 용납하지 않는 분이심에도(14~16절) 욥이 하나님께 분노한다며 질책합니다(11~13절). 엘리바스는 전통적인 지혜로 욥을 혼계합니다(17~19절). 이어서 엘리바스는 악인들은 그들의 평생에 고통을 당하고 환난과 역경이 그들을 칠 것인데(20~24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25절). 또한 그는 결국 악인들은 황폐한 곳에 살고 부요하지 못하며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고 열매를 얻지 못하며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26~35절).

엘리바스는 전통적인 지혜에 의지하여 욥의 잘못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생각은 옳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의 지혜로도 판단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하는 잘못된 생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인간의 지혜와 생각 안에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전 1:25). 사람들이 겪는 고난을 인간의 지혜로 이해한다면 눈물과 좌절과 불행뿐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고난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눈앞에 다가온 현상에만 마음을 빼앗겨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쳐버리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욥기 15장

찬송가 300장

묵상노트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욥 15:14)

What is man, that he could be pure, or one born of woman, that he could be righteous?(Job. 15:14)

• 동풍으로 복부에 채우다
(2절) : 동풍은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바람을 말하고 복부는 인간의 생각과 감정의 처소를 지칭한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 ① 고난과 어려움 중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소서.
- ②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설 명절이 되게 하소서.



성경의 절기②

농경 축제 절기

명 칭	시 기	목 적
초실절	유월절 후 첫 안식일 이튿날(레 23:11)	• 곡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첫 곡식단을 봉헌함(레 23:10 ; 롬 8:23 ; 고전 15:20~23) • 모든 필요의 공급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음을 인정(레 23:9~14)
맥추절	무교절에 첫 이삭 한 단을 요제로 드린 날 곧 초실절로부터 50 일째 되는 날 (출 23:16, 34:22 ; 레 23:16)	• 밀 추수의 첫 소산을 바치고 봉헌하기 위함. 성전 파괴 후에는 시내 산에서 율법 받은 것을 기념하는 의미로 지켜짐(출 23:16)
초막절	티쉬리월 15일부터 1주일간 계속됨 (레 23:34 ; 민 29:12)	• 광야 생활 중 인도, 보호하신 은혜를 기념(신 16:13~17) • 토지 소산의 추수를 마칠 때 여호와 의 절기를 지키기 위함

절기는 정기적으로 과거의 특정 사건을 기념하여 그 뜻을 오늘에 되새기기 위한 제
도이다. 성경의 절기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원리에 근거한 일자 구분 및 하나님이 당
신의 백성을 위하여 특별한 구원사역을 행하신 사실을 근거로 선민 이스라엘에게 의
무 조항의 하나로 규정하셨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비록 신약의 성
도가 히브리 절기를 문자적으로 지키지는 아니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절기는 구약의
구속사적 의미가 깊은 것이므로 그 절기가 갖는 영적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한다.

내 용	의 미
• 추수 전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요제로 흔들어 바침(레 23:9~10) • 번제와 소제, 전제를 드림(레 23:13) • 예물로 드리기 전에 사람이 먼저 먹어서는 안 됨(레 23:14)	•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로서 성도 들의 부활의 보증이 되심(로 8:23) • 하나님께 바쳐진 첫 이삭 단은 성도 와 교회를 암시
• 모든 수확물은 첫 열매를 제물로 바친 뒤 에야 사용 가능함(민 28:26~31) • 떡 두 덩이로 요제를 드림(레 23:17) • 남자들은 할렐루야(시 113~118편)를 부르 며 가무에 참가함	• 오순절 축복, 곧 그리스도께서 승천 하신 후 성령님이 강림하심을 예시 (행 2:1~4) • 오순절에 바치는 떡 두 덩이는 유대 인과 이방인의 상징으로 봄
• 새벽 - 해맞이와 관련된 의식 • 아침 - 헌수 의식 • 밤 - 축제 의식	• 이 세상 인생 길이 초막에 거하는 나 그네의 길임을 보이며, 우리의 영원 한 집은 오직 하늘 나라에 있음을 보 여줌(스 3:4)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10 주일

11 월요일 ☐ 옴기 16장12 화요일 ☐ 옴기 17장13 수요일 ☐ 옴기 18장14 목요일 ☐ 옴기 19장15 금요일 ☐ 옴기 20장16 토요일 ☐ 옴기 21장

2

진실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십니까?Are You Really Looking Forward To
A New Heaven And New Earth?

| 초점 |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해야 한다

| 찬송 |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송가 174장 대속하신 구주께서

| 본문 | 베드로후서 3:13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은 항상 빛으로 어둠을 밝히십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지상낙원을 만들려고 하지만 이 땅은 너무나 어두운 곳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신자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빛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만의 빛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 1:4~5 _____

골 1:13~14 _____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불타버릴 것입니다(벧후 3:12). 이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큰 소리로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의 축복을 가르쳤던 모든 교역자들과 그것만을 원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것입니다. 그 때에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진실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준비해 주신 새 일들을 고대하며 바라보고 있습니까? 장차 가장 좋은 것이 올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심판의 날

가장 좋은 것은 심판 후에 뒤따를 기쁨입니다. 주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벧후 3:10

이 세상은 그 날을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새로운 창조 전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이 땅의 그 어떤 약속들보다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존하실 주님의 말씀만큼이나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래가 아닌 현재의 것에 너무나 바쁜 나머지 이 사실을 모르거나 믿지 않습니다.

시 102:25~26

마 24:30~31

※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마 24:44)는 말씀에 대한 나의 준비는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세상의 소멸

가장 좋은 것은 세상이 소멸된 후에 뒤따를 즐거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소멸됩니다.

벧후 3:12 _____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것들은 다 소멸될 것입니다. 죄인들의 꿈은 악몽으로 바뀔 것이며, 사악한 자들의 재산은 무가치하게 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분의 말씀을 지키실 것입니다.

※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계 21:1~2,11,23).

계 21:27 /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_____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이 어떠할지 나누어 보십시오(계 21:4).

새 하늘과 새 땅

가장 좋은 것은 소란과 파멸에 뒤따를 의입니다.

벧후 3:13 _____

우리의 의로우신 주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모든 겁쟁이들, 악한 지도자들과 사악한 자들은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많은 고통이 있겠지만, 지금보다 좋은 날들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이 의의 길을 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 23:3 _____

벧후 3:11~12 /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
냐 _____ 과 _____ 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_____ 하라

의의 땅에서 의의 사람들과 함께 의의 통치자 아래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 5:10 _____

롬 3:24 _____

하나님이 항상 통치하고 계십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기억하십시오(계 19:1~4).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천국을 약속하십니다. 시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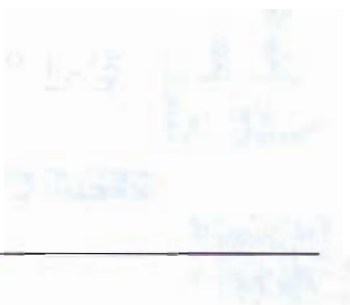
계 19:6 _____

계 22:20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 ② 십자가의 복음을 삶을 통해서 전하게 하소서.
- ③ 우리 가정, 구역(팀)이 천국 복음으로 부흥되게 하소서.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참된 위로는 십자가

욥기 16장
찬송가 411장

묵상노트

친구들의 말은 욥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었습니다(2~5절). 욥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진노하여 적대하시기 때문에 무리들이 그를 대적한다고 주장합니다(9~10절). 그리고 그 사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욥이 죄인이라고 믿게 합니다(8절). 하나님께서 욥을 악인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욥의 평안은 사라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이 찾아왔습니다(11~13절).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기 때문에 욥에게 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14~16절). 그렇지만 욥은 여전히 “내 손에는 포학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고 말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17절). 그리고 그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증인과 중보자가 있으며 그분은 하나님이라 믿습니다(18~22절).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전통적인 생각으로 오히려 욥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난에 공감할 수 있지만, 고난을 겪는 그 사람의 마음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는 주님께만 있습니다. 사람이 겪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면 참된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인생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사망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우리 구주 되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참된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 풀(15절) : 영광, 명성, 권능. 욥이 과거 고통 받기 이전에 자신이 누리던 사회적 위치와 부귀영화를 의미한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욥 16:19)
Even now my witness is in heaven; my advocate is on high.(Job. 16:19)

기도제목

① 세상의 다른 것에서 위로를 얻으려 하지 않고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지금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12

화요일

욥기 17장

찬송가 540장

묵상노트

욥은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 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날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1~2절). 그리고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리셔서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고 주장하며 하나님께 보응을 바랍니다(4~5절). 욥은 하나님께서 그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셨고 그의 상황은 그림자와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6~9절). 이어서 그는 친구들의 지혜는 밤으로 낮을 삼는 것 같이 어리석다고 비난합니다(10~12절). 그러나 그는 여전히 고통으로 죽음이 더 가깝고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느낍니다(13~16절).

욥은 자신의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이 그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겪는 고난을 보면 자신의 잘못이나 죄로 인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역시 자신의 불임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삼상 1:10~11). 모든 상황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주님께 자신의 상황과 문제를 모두 맡겨야 합니다. 혹시 지금의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욥 17:9)

Nevertheless, the righteous will hold to their ways, and those with clean hands will grow stronger.(Job. 17:9)

• 속담거리(6절) : 이야기거리, 웃음거리, 조롱거리를 말한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모든 상황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기도하게 하소서. ② 제5차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2월 21일~23일)가 민족 복음화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시고, 참석한 교회들이 십자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악인들이 득세하지만

욥기 18장
찬송가 507장

묵상노트

빌닷은 자신들의 지혜를 짐승으로 여기는 욥에게 분노하며(1~4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의 운명에 대해 말합니다(20~21절). 악인의 빛은 꺼질 것이고 등불은 꺼질 것이며(5~6절), 악인은 자신의 꾀에 빠질 것입니다. 이는 그의 앞에는 그물과 올가미와 덫과 올무와 함정이 기다리고, 무서운 것이 그를 놀라게 하고, 그를 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7~11절). 악인의 힘은 쇠하고 재앙이 그의 곁에 있고 그의 피부는 질병에 삼켜질 것입니다(12~13절).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고 그의 처소가 망할 것입니다(14~15절). 악인들은 후손이 사라져 그를 기억할 사람이 없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후손 중 남은 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16~19절).

빌닷은 전통적인 교리에 입각해서 욥의 상황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말을 인정하지 않는 욥에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욥이 고난을 받기 때문에 악인이라는 논리를 펴며 악인들이 당할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빌닷의 논리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의롭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자는 세상에서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자는 세상이 주는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악한 자가 세상에서 더 큰 힘을 누립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악한 자가 힘을 얻고 부를 누린다고 해서 그것을 따르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시작인 재의 수요일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가는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 사망의 징재(13절) :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일종의 불채병.
- 공포의 왕(14절) : 죽음을 가리키는 비유.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욥 18:5)

The lamp of the wicked is snuffed out; the flame of his fire stops burning. (Job. 18:5)

기도제목

- ① 세상의 헛된 것에 욕심 부리지 않고 오직 십자가로 살아가게 하소서. ②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순절이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14

목요일

욥기 19장

찬송가 168장

묵상노트

욥은 친구들이 자신의 마음을 괴롭힌다고 항변합니다(1~3절). 그리고 비록 자신에게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6절).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응답하지 않고 그의 길을 막으며 자신의 희망을 꺾고 원수처럼 여기신다고 생각합니다(7~12절). 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들과 친척들과 종들이 그를 잊었고(13~16절), 가족과 어린 아이들까지도 자신을 조롱하며 가까운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원수가 되었다고 한탄합니다(17~19절). 그리고 친구들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20~22절). 욥은 이제 그의 대속자가 계시며,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합니다(23~29절).

욥은 재물과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비참한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에게 대속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대속자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받는 욥의 대속자이시며, 죄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들의 대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죄를 대속 받습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도 대속 받은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주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입니다.

• **찰밀, 남(24절)** : 찰밀은 고대 근동사회에서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나 선언 등을 돌 위에 새길 때 사용되었던 도구이며, 남은 오랜 세월이 지나가도 돌에 새긴 것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 물질이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욥 19:25)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and that in the end he will stand upon the earth.(Job. 19:25)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죄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주님만 따르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어떤 죄악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욥기 20장
찬송가 255장

묵상노트

소발은 욥의 확신과 자신들에 대한 경고에 분노합니다(1~3절). 그는 악인의 자랑은 잠시뿐이고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시뿐 결국 영원히 망할 것이며(4~7절), 그의 인생은 허무하고 재물도 사라지고 청년같이 강장하던 기골도 꺾여 흠에 눕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8~11절). 소발은 악인의 악행은 달지만 결국 독사의 쓸개가 되는 음식처럼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가며(12~14절), 그가 얻은 모든 재물은 그의 악한 행위 때문에 결국 삼키지 못하고 다 토하여 내놓게 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15~19절). 또한 악인의 평안과 행복은 일시적이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며, 그의 죄악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게 될 것이 악인의 분기이라고 말합니다(20~29절).

소발 역시 다른 친구들처럼 욥이 악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악인들의 말로가 비참한 것처럼 욥 역시 그의 죄 때문에 지금 비참한 상황을 겪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발의 말은 욥을 회개로 인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절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죄악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즉시 징계하셨다면 단 한 사람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오래 참으셨을 뿐 아니라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씻어 주셨습니다.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회개함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 독사의 쓸개(14절) : 독을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이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욥 20:5)

that the mirth of the wicked is brief, the joy of the godless lasts but a moment.(Job. 20:5)

기도제목

①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총천교회의 재단들(유지, 동산,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진행 중인 시설 공사 및 양로원, 함양총천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16

토요일

욥은 자신의 원망이 친구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말합니다(1~4절). 그는 악인이 강하며 그들의 후손이 굳게 서고 평안하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고 재물은 풍족하며 자녀들은 춤추며 노래하기 때문에(7~12절)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않고 섬기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13~16절). 악인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드물고 그들의 자손들에게 죄를 갚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기며(17~21절), 의인이나 악인 모두가 죽기 때문에 악인의 죽음은 심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23~26절). 그는 악인에게 실제로 불행이 닥치지 않고 죽음이 악인의 성공을 단절하지도 않으며 악인들이 죽음을 통해 더 큰 영예를 얻기도 하는 데도 친구들이 헛되이 위로한다고 비난합니다(27~34절).

세상은 욥의 주장처럼 악인들이 더 풍족함을 누리고 더 큰 영예를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이 불공평하며 공의롭지 못한 분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논리는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으십니다. 우리는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를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논리로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믿지 않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신자는 어떤 경우여라도 자신의 생각을 믿거나 의지하지 않고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욥기 21장

찬송가 502장

묵상노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욥 21:22)

Can anyone teach knowledge to God, since he judges even the highest?(Job. 21:22)

• 권인(28절) : 고귀한 신분을 지닌 자, 70인 역에서 는 지배자로 번역하였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내 지혜와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따르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믿음이 작은 자여

(마태복음 14:31)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라고 부르셨다. 베드로 자신은 자기의 믿음이야말로 가장 강하고 크고 훌륭하다고 확신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를 향하여 부르신 이름은 “믿음이 작은 자!”였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사는 이제 더 이상 놀랍거나 전혀 기이한 것이 아니었다. 이토록 용감하고 솔직한 베드로가 감히 그의 주님을 의심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들 역시 우리 자신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 스스로 부유하고 풍족하다고 믿고 있지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모습은 별거벗었으며 가난하고 비참하다. 번쩍이는 것이 모두 다 금이 아닌 것처럼 용감하게 말하는 것이 모두 믿음은 아니다. 믿음이 작은 자로 만든 의심은 분명히 죄다. 이는 자신의 체험에서 오는 것이다. 자신의 의지에서 온 것이다.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온 것이다. 의심은 진정 애통할 수밖에 없는 죄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의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것이 진실이다. 이 땅에서 행하신 주님의 모든 사역은 우리들로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는 그의 사랑, 진리, 권능을 의심케 할 만한 것이 전혀 없으시다. 의심할 이유가 있을 때까지 의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풍성할 것이다.

작은 믿음 안에 담긴 요소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라 부르셨다. 믿음이 작은 자는 비록 잘못을 저지른 자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다. 믿음은 크고 작기 이전에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가져다줄 믿음을 만드실 수 있고 살아 있는 믿음의 가장 작은 조각까지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다. 아무리 나약하다 하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성령의 열매요, 새로 태어남의 증거다. 믿음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창조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이 작은 자가 새 예루살렘에 태어난 참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이다. 모든 계산을 다 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 맡기자. 그때에 우리의 영혼은 완전한 평화 속에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광풍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파도 위를 걷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시므로 물에 빠질 염려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으로 굳게 서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믿음이 작은 자들을 주께서 알아주신다

주께서는 “믿음이 없는 자여”, 또는 “믿음이 있는 척하는 자여!”라고 부르지 않으셨다. 오히려 “믿음이 작은 자”라 불러 주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작은 믿음이 있는 자”라고 인정하여 주실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인정을 받고 싶다.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다면 사실상 나는 뿌리를 가진 자다. 물론 작은 믿음보다는 크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싶다. 그러나 강한 믿음을 가진 척하기보다는 오히려 작은 믿음을 갖고 싶다. 비록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지만 이것은 실수가 없으신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있음을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의 주인이시다. 우리 주님은 항상 자신을 향하여 오는 ‘믿는 자들의 주’가 되어 주신다. 믿음의 크고 작음에 차별이 없으시다.

믿음이 작은 자를 구하여 주신다

믿음이 작은 자는 물에 빠지기 시작하였다. 오직 시작일 뿐이다. 물에 빠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구하여 주심으로 끝이 난 것이다. 성경은 “베드로가 빠져 가는지라”고 말한다. 이는 곧 빠지기 시작하였다는 뜻이다. 이것이 문제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빠지기 시작한 그 시점을 넘어서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멸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지만 아직 멸망당하지는 않은 자들이다. 죽음에 처하여 있으나 아직은 살아 있는, 빠지기 시작했으나 구원받은 자다. 비록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자녀들은 영원하다. 주님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물에 빠지는 자를 잡아내어 그와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하실 것이다.

믿음이 작은 자를 책망하신다

믿음이 작은 자를 구하여 내시고 안전하게 세우신 후에 사랑의 꾸짖는 음성이 들린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책망의 음성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들리는지 모른다. 우리가 천당에 들어갈 때에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린다. “왜 의심했니?” 하시는 말씀이 전혀 책망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고 오히려 안타깝게 기다리시던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시는 것 같다.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고통과 빈곤과 슬픔이 사라진 황금 길에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하신 주님과 함께 서 있는 우리들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의심을 버리자.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란다. 마음에 질문조차 던지지 않기를 바란다. 교만한 질문들, 교활한 의심을 이 밤에 끝내기를 바란다. 위에 있는 천국은 이미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시작되었다. 아멘.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17 주일

18 월요일 ☐ 사도행전 1장19 화요일 ☐ 사도행전 2장20 수요일 ☐ 사도행전 3장21 목요일 ☐ 사도행전 4장22 금요일 ☐ 사도행전 5장23 토요일 ☐ 사도행전 6장

3

위기의 상황에서

In Dangerous Situations

| 초점 |

위기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 찬송 |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 본문 | 시편 94:17~19

(17)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18)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19)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오늘의 시편 기자는 깊은 환난 중에 있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악은 선을 대적했으며, 이는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삶의 위기에서 도움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위기임을 느꼈던 것입니다.

시 94:17 _____

※ 환난의 시간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은 믿음에 의지합니까, 아니면 자신의 사고방식을 신뢰합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여러분은 해 보았습니까?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돌이켜야 할 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의 결심을 굳게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의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하나님은 그를 도우셨다

하나님은 그를 도우셨습니다.

시 94:17

하나님은 환난의 시간에 만날 수 있는 큰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시 46:1). 하나님의 큰 도우심은 상상이 아닌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나 구할 수 있으며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 그 곳에 있습니다.

※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것을 나누어 보십시오.

시 121:1~2

하나님은 천지에서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분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이 도우심은 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지, 절친한 친구나 배우자, 심지어 부모로부터도 나온 것이 아닙니다. 유한한 자들에게 의지하는 것을 멈추고 무한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기 시작하십시오. 사랑의 주님은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자들을 도와주십니다.

애 4:17

하나님은 그를 붙드셨다

하나님은 그를 붙드셨습니다.

시 94:18 _____

필요한 때에 그에게 자비가 임했습니다. 이 신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을 붙드심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 누구도 여러분을 도와준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드신 적도 없다고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발을 붙드셨습니다.

시 121:3 _____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려고 할 때에도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를 붙들게 될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은 일평생 지속될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는 영원합니다.

시 23:6 _____

※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평생 붙드시리라는 사실을 믿을 때 누리는 은혜에 대해서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위로하셨다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시 94:19

주님의 위로하심은 이 신자의 영혼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의 근심을 풀어주었을 때 그의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성령님은 어려울 때에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 요한복음 14:16~18 말씀이 전하는 핵심을 한 문장으로 써 보십시오.

성령님은 모든 신자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분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고 무장시키시며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며, 그분의 평화는 극심한 환난 중에 있는 심령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모든 영혼을 위로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요 14:27

요 16:33

예수님은 이 위험한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을 향해 자비로운 음성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은 믿음으로 당신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을 도우시며, 붙드시고, 위로하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시 121:7~8).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기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고후 4:17~18 _____

벧전 5:10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소서.
- ②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여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 ③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This image shows a single page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is no handwriting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사도행전 1장
찬송가 499장

묵상노트

사복음서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짐을 진술합니다. 이어서 성령은 그의 십자가 구속으로 이루어진 은혜의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이루어져 나가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귀한 진리들입니다. 본서의 핵심적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엄밀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외치셨던 예수님은 바로 자기 자신을 깨시고 피를 쏟으심으로 그 천국의 때를 성취하시고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 사십 일 동안 자신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3절). 또한 예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복음의 증인들을 세우셨습니다(8절).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성취된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와 통치를 의미합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던 죄인들에게 은혜로 찾아오시어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왕으로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에 계속 진전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그렇게도 사모하고 추구했던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것이 이 시대의 우리도 동일하게 사모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 **증인(8절)** : 헬라어 '마르τυ레스'로서 구약 시대에는 범죄의 성립 여부에 관계된 법정 용어였다.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자들과 특히 예수께 관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자들을 가리킨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Ac. 1:8)

기도제목

- ① 먼저 그리스도의 나라를 구하고 전하는 증인 된 삶을 살게 하소서.
- ②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설교

19

화요일

사도행전 2장

찬송가 144장

묵상노트

베드로는 오순절을 맞아 모여 든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약의 예언자 요엘의 말씀을 인용하여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구원의 날을 설명하고 있으며(16~21절), 동시에 다윗의 글을 적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도 진술하고 있습니다(25~32절). 베드로는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 말씀의 칼을 가지고 죄인 된 그 영혼들에게 강력한 도전으로 외쳤습니다(38절). 베드로가 집중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이었습니다. 더불어 각 영혼이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해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모든 설교와 설교자들의 공통된 관심이고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함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성취되고 이루어지며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미묘한 시간차 속에 왕으로서 재림하시는 그때를 고대하며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진행의 중심에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외치며 가르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시고 더욱 성장케 하시며 나아가 완성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 일은 초대교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 선포를 통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증거해야 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행 2:38)

Peter replied, "Repent and be baptized, every one of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And you will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Ac. 2:38)

• 오순절(1절) : 이스라엘 3대 절기 중 하나로서 유월절 축제 기간 중 첫 이삭을 드린 다음 날로부터 개산하여 7주 후에 거행되는 절기이다. 신약시대에 와서 이 절기에 성령이 강림함으로써, 오순절은 추수제에서 성령강림절로 그 의미가 대체되었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 ① 오직 십자가 복음을 더욱 사랑하고 어디서든 그것을 자랑하게 하소서.
- ② 제5차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2월 21일~23일)와 제1차 청지기훈련(2월 22일)에 온 성도들은 기도로, 임장선 일꾼들은 십자가를 붙들며 섬기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역설

사도행전 3장
찬송가 563장

묵상노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있었습니다(2절). 그는 성전으로 들어가려 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무엇인가 얻고자 구걸합니다. 어느 시대 어떤 경우에나 신체적 장애를 겪고 있는 불우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 구걸을 하기도 합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했습니다. 굳이 정확히 말하면 특별히 주목한 것이 아니라, 어느 때와 같이 구걸하기 위해 바라본 것일 겁니다. 그는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언가 물질적 보탬을 기대했을 것이고, 따뜻한 온정을 고대했을 것입니다. 당시로서 최상으로 통용되던 ‘금’과 ‘은’을 얻으려는 인간적 욕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은과 금은 최고의 상품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누구나 그것에 매몰되듯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사실을 구걸하고 있는 자에게 선언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6절). 하나님 나라에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 나라에는 이 세상 나라가 선호하고 집착하고 있는 그 어떠한 물질적 가치도 통용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 받는 것들은 그 나라에서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단지 불에 소멸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찬송과 경배를 받는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대 받고 있는 그 이름이 그 나라에서는 가장 고귀한 능력과 영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어느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된 관심은 무엇입니까? 은과 금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 미문(2절) : 미문의 이름은 외관상 장엄하고 화려하다는 이유에서 붙여졌다. 예루살렘 성전 바깥 돌 동쪽에 위치하여 있고 또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도 그대로 남아 있던 동문을 미문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행 3:6)

Then Peter said, "Silver or gold I do not have, but what I have I give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walk." (Ac. 3:6)

기도제목

① 세상의 은과 금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② 제5차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2월 21일-23일)와 제1차 청지기훈련(2월 22일)의 모든 일정을 성령께서 세밀하게 이끄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형기로만 가득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21

목요일

어느 시대에나 복음이 복음으로 온전히 전파되고 그 복음 안에서 참된 영적 부흥의 은혜가 일어났던 적은 거의 손에 꼽힐 정도로 극히 적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늘 모욕과 박해, 그리고 핍박과 고난을 받아 왔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도 그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이 붙잡히고 감금당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1~3절).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조차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에 사도들이 행하는 일에 관하여 심각한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7절). 베드로는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나 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10절). 베드로의 주장은 명쾌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났고 진행되고 있음을 강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결코 인간적이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 나라의 백성은 결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요 6:29), 그 나라의 백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요 10:9).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지 않은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의 가능성이 여러 경우에 열려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없음을 명백히 증거하고 있습니다(요 3:3~5).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행 4:12)

Salvation is found in no one else, for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given to men by which we must be saved. (Ac. 4:12)

사도행전 4장
찬송가 258장

묵상노트

• 성전 앞은 재(1절) :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라 하였는데(대상 9:11 : 느 11:11) 레위인 중에서 임명된 성전 수비군의 대장을 가리키며 지위상으로는 대제사장보다 못하였으나 상당한 권력을 행사하였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복음의 진리를 더욱 깊이 알게 하소서. ② 제5차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2월 21일~23일)가 민족 복음화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전파

사도행전 5장
찬송가 448장

묵상노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많은 자들이 주께로 나아오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났습니다(12~14절).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수많은 자들이 사도들 앞으로 나아와 병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었습니다(15~16절).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더욱 왕성하게 퍼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몰려왔습니다. 당시의 교회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고 인격적인 모욕과 심한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17~41절). 왜냐하면 자신들이 십자가에 매단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들이 전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파는 단순히 어떤 원리나 개념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보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외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로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실제 말로 다 할 수 없는 가혹한 박해와 핍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오직 그 길만이 복음의 길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매인 인생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능욕과 고난을 도리어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41절).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전파하고 있습니까?

• 가말리엘(34절) : 가말리엘은 당시 'הלל' 학파의 지도자로서 율법 문제에 관한 한 고문적으로 공회에 몸담고 있었으며, 한때는 산헤드린의 의장직을 맡기도 했다. 헬렐 학파의 지도자이자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했다. 당시 랍비들 중에서도 특별히 선택된 7인의 '랍변'(큰 스승) 중 한 사람이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행 5:42)

Day after day, in the temple courts and from house to house, they never stopped teaching and proclaiming the good news that Jesus is the Christ. (Ac. 5:42)

기도제목

①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소서. ② 2013년 제1차 청지기훈련(2월 22일 금요일, 7시)에 모든 성도가 기도로 준비하여 참석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하나님 나라와 부흥

23

토요일

사도행전 6장
찬송가 202장

묵상노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7절). 주의 복음은 날로 왕성히 전파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놀라운 구원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제자의 수가 상당히 늘어나 부득이하게 구제와 나눔의 사역을 전담할 집사의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여 이 일에 전념하도록 하였습니다(1~6절).

우리는 종종 교회의 부흥을 논할 때, 수적인 성장이 곧 부흥이라는 이상한 등식을 세우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의 부흥이라기보다 성공주의와 기복주의적 변영신앙이 남긴 오해일 뿐입니다. 수적인 성장은 결코 부흥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적인 성장 자체를 금기시키고 아랑곳하지 않는 것 또한 결코 성경적 부흥은 아닙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1절),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7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행 2:47),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행 2:41).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역사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 자체입니다. 부흥을 일으키는 주체는 인간도 교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뻐신 뜻을 따라 이루시고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왕성하게 만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권적으로 점점 왕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되어 그 부흥을 일구어 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행 6:7)

So the word of God spread. The number of disciples in Jerusalem increased rapidly, and a large number of priests became obedient to the faith. (Ac. 6:7)

• **절대(2절)** : 문자적으로 '식탁에서 수종함'의 의미이다. 예찬용 상을 차리는 일을 비롯한 제반 구제 사업과 교회의 재정 출납을 뜻한다.

기도노트

가도제목

① 침된 영적 각성과 부흥의 은혜를 경험케 하소서. ② 제5차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2월 21일~23일)에 참석한 목회자들이 십자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소서.



결국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믿음이 작은 자여!”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은 곧 내게 강하게 들려주는 말씀이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두려움 없이 순종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내가 하려고 뭉부림친다. 내 작은 믿음 속에 의심이 있기 때문이다. 이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다. 도와 달라 주님만 바라보는 것처럼 기도하면서도 늘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나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애쓰며,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 내 의지와 노력으로 의인이 되려고 하고 천국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물 위에서 바람을 무서워하며 주님을 부르는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듯이 주님은 내가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도록 인도하셨고, 믿음이 작아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의심하며 절망하며 흔들릴 때에도 주님은 연약한 나를 계속 붙잡아 주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 결국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지금까지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로 왔음을 깨달으니 너무나 감사하다.

노현숙(성도, 11교구)

주님 손을 붙잡아야

마음이 어렵고 슬픔과 원망 가운데 기도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청지기훈련에 임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며 내가 참 믿음이 작은 자임을 바라보며 회개하게 되었다. 주님을 만나 지금까지 거의 평생을 주님과 함께 했으면서도 닥쳐오는 온갖 시련에 너무나도 나약했고 번덕스러웠던 나였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다가도 바로 돌아서서 절망과 원망에 질식해 버리기 일쑤였다. 그런 나에게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마 14:31) 하시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마 14:27) 말씀하셨다. 우리 가정이나 주님 은혜 안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수시로 작아지는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때마다 주님 손을 붙잡아야 함을 깨닫게 하셨다. 참 부족한 자녀이나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인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서성애(집사, 13교구)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고다

강단에서 목사님은 믿음이 없는 자의 특징에 대해 자세히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 주님을 뒤로 잘 버리고, 주님 하시는 말씀을 잘 잊어버리고, 영적 시야가 좁으며, 실망을 잘하며, 기다림에 만족이 없다고 하실 때 난 속으로 '그래도 난 저 부분에서 어느 정도 중간은 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쭈욱 올라온다. 스스로 위로하고 있다. 그러나 말씀이 선포될수록 주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보다 내가 앞서 있었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이 없음을 느끼며 부끄러워지기 시작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를 찾으시는데 난 이미 믿음이 큰 자가 되어 있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운다 하시건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나는 예수님보다 더 커져 있다.

순간이다! 어디 숨고만 싶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으신다. 나의 부끄러움과 숨고 싶은 수치를 예수님께서 친히 대신 지신다.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갓 태어난 믿음이라도 주님은 믿음이라 부르시고 즉시로 도와주신다. 나는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 믿음만을 보시고 믿음 없음을 죄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고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과 은혜, 온전한 그 사랑 아니면 천국을 소망할 수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도,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평안도 누릴 수 없음을. 이 죄인에게 그 거룩함을 내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가슴이 저려온다. '예수님, 나를 책망하소서. 이 믿음 없는 교만한 자를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날마다 매 순간 설 수 있도록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친히 뵈을 때까지 이 죄인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모든 것 홀로 이루시는 그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이시은(집사, 9교구)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24 주일

25 월요일 ☐ 사도행전 7장26 화요일 ☐ 사도행전 8장27 수요일 ☐ 사도행전 9장28 목요일 ☐ 사도행전 10장1 금요일 ☐ 사도행전 11장2 토요일 ☐ 사도행전 12장

4

스테반

Stephen

| 초점 |

사탄의 방해를
믿음으로 맞서야 한다

| 찬송 |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 본문 | 사도행전 7:54~60

⁵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
거늘 ⁵⁵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⁵⁶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⁵⁷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⁵⁸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⁵⁹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⁶⁰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
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탄은 초대교회의 부흥을 막았습니다(행 6:9~13). 사탄은 내적인 다툼과 외적인 핍박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대적하였지만, 교회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12사도는 자신들만으로 교회의 성장을 감당할 수 없어서 교회를 섬길 일꾼 집사를 세웠습니다.

※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있었던 어려움과 핍박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행 6:3~4 _____

신실한 믿음의 사람 스테반은 첫 번째로 선택받았습니다. 이 새로운 조직 구조는 교회에 더 큰 성장과 축복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행 6:7). 무엇이 스테반을 이렇게도 역동적인 교회의 일꾼으로 만들었을까요?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다

스데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행 6:8,10

스데반이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는 공회 앞에 나아가 자신을 반대하는 모든 거짓 증인들의 증거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회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했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 사도행전 7:2~50 말씀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 사도행전 7:51~53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 이사야 55:10~11은 말씀의 어떤 면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인용하는 것과 말씀에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맡기는 것은 아주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스데반은 순교를 무릅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선언하였습니다. 성경으로 간증할 때 우리의 땀에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구주께 완전히 헌신하였다

스데반은 구주께 완전히 헌신하였습니다.

행 7:54~55

공회는 스데반의 간증에 난폭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이 담대한 신자에게 매우 분노했으며,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의 간증을 거절할 때 놀라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세상에 속한 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세상은 그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면 세상은 반드시 그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요 15:18~19

행 7:56~58

거절 당함이 두렵다는 이유로 우리 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된 삶은 위험이나 죽음 앞에서도 용감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갈 2:20

잃어버린 자를 불쌍히 여겼다

스데반은 잃어버린 자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행 7:59~60

스데반은 상상할 수도 없을 끔찍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으며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집중했습니다. 천국은 스데반에게 실재였습니다. 그는 우러러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은 이미 신실한 종인 스데반을 보살피시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벤전 4:13

스데반은 죽기 직전에 주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며 핍박자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는 마지막 기도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의 마지막 기도는 진실로 바울을 감동시켰습니다. 스데반이 가진 능력의 원천은 말씀, 행복과 영혼들이었습니다.

※ 스데반과 같은 주님의 일꾼이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심령을 여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관심, 헤아림과 보살핌으로 채우시도록 하십시오.

사탄은 계속해서 다양한 내외적인 환난을 통하여 모든 교회들의 전진을 방해하겠지만, 교회는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이 기초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강력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할 때, 여러분의 힘은 강화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붙잡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의 간증은 강해집니다. 우리 교회, 우리나라와 세계가 스데반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활발한 신자들로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방해를 믿음으로 대적하십시오.

엡 6:10~11 _____

롬 13:12 _____

행 20:24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사탄의 방해를 믿음으로 대적하게 하소서.
- ② 나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게 하소서.
- ③ 우리 가족, 구역원(팀원)이 스데반처럼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illegible]



※ <충현의 만나>를 통해 매일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주간충현>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 552-8200(# 342, 348) / E-mail, psalms1715@naver.com

하나님 나라와 구약 역사

사도행전 7장
찬송가 205장

묵상노트

스테반은 당시 초대교회의 일곱 집사 중 한 사람으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으며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의지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본문에 나타난 그의 설교는 구약 전체를 꿰뚫고 있고 동시에 복음의 핵심과 내용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대변되는 구약 족장시대로 시작하여 모세의 출애굽 사건과 광야교회의 상황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스테반의 설교는 구약 역사를 전체적으로, 또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고 그에 대한 회개의 촉구였습니다(51~53절).

스테반의 설교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죄인 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일하심의 결과임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도리어 자신의 죄악에 따라 예수를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마치 빛이 어두움에 오매 어두움이 빛으로 인해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그 빛을 죽이고 소멸시켜 버리는 것과 같이 구약으로 대변되는 인간의 역사는 죄악의 역사이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역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창조 전부터 예정되었고 구약의 죄의 역사 속에서 도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기뻐하심 뜻과 분명한 계획 속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 나그네(6절): 헬리어 '파로이코스', '결에 와 거저', '가정'의 합성어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차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할 것을 예언하신 것을 의미한다. 성경은 이 사실을 비담으로 성도들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나그네의 삶으로 묘사하고 있다(벧전 1:7, 2:11).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행 7:52)

Was there ever a prophet your fathers did not persecute? They even killed those who predicted the coming of the Righteous One. And now you have betrayed and murdered him-- (Ac. 7:52)

기도제목

- ①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을 복음의 나팔로만 사용해 주시고,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후임 담임목사님이 청빙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하나님 나라와 고난

26

화요일

교회의 역사 박해의 역사입니다. 박해와 핍박이 없었던 때는 교회사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교회로서 나타날 때 뒤따랐던 시대적 상황은 교회에 대한 반대와 끔찍하리만치 가혹한 박해였습니다. 본문은 초대교회의 핍박과 그로 인해 벌어지는 교회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의 묘한 역사적 과정 속에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 가운데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현존하는 고난과 박해, 핍박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는 심각한 시대적 위협과 박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와 같이 칼과 창으로 위협하고 옥에 가두는 그런 일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오늘날 이 시대에는 보기 힘든 광경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교묘하고 간악한 박해가 이 시대의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로 인한 성경 권위의 훼손과 자본주의로 인한 교회의 물질주의화, 그리고 기복적 성장주의, 전통 등이 교회를 옴아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초대교회의 박해와는 비교되지 않는 더욱 교묘한 명분과 계교를 지니고 있기에 이러한 현대사조에 물들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도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의 위협 수위에 현대교회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엡 6:13~18).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기도와 간구로 주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성령의 감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찬송가 341장

묵상노트

• **잔멸함새(3절)**: 난폭함을 의미한다. 다른 번역서에서는 포도원을 파헤치는 산돼지의 난폭함을 비유로 표현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사울의 잔악함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행 8:1)

And Saul was there, giving approval to his death. On that day a great persecution broke out against the church at Jerusalem, and all except the apostles were scattered throughout Judea and Samaria.(Ac. 8:1)

기도제목

기도노트

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사는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② 충현 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삶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

사도행전 9장
찬송가 493장

묵상노트

사울은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를 가지고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는 일을 맡아 행하던 자였습니다(1~2절). 그런 그에게 엄청난 변화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즉 '다메섹 변화 사건'이라 불리는 사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길을 가던 그는 하늘로부터 홀연히 자신을 두르는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음성 앞에 그는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다메섹에서 그는 단지 기도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런 그에게 다메섹의 아나니아가 방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울의 소명을 알려 주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15절).

사울(불신자)은 변하여 바울(신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바울은 하나님을 만났고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일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은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그릇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주를 만난 바울은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부르심에 의해 죽음을 불사한 복음의 일꾼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4). 오늘도 주님은 복음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그릇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위한 그릇입니까?

• **바울(18절)** : 헬라어 '레 피데스', '검질을 벗기다'란 뜻을 가지고 있다. 의사인 누기만이 사용하고 있는 독특한 의학 용어이다. '균열된 피부 조각들'이 벗겨져 실제 보지 못하던 사울이 보게 된 치유의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행 9:15)

But the Lord said to Ananias, "Go! This man is my chosen instrument to carry my name before the Gentiles and their kings and before the people of Israel." (Ac. 9:15).

기도제목

- ① 언제 어디서나 복음에 매인 바 복음의 증인 된 삶을 살게 하소서.
- ②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하나님 나라와 이방 선교

28

목요일

사도행전 10장
찬송가 510장

묵상노트

이방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주의 사랑을 베드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먹으라고 보이신 것들을 속되고 깨끗하지 않다고 여겨 베드로는 먹지 않고 있습니다(9~16절). 당시의 율법적 조항에 근거하면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들은 결코 먹을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먹고 아니 먹고의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께서 먹으라고 했다는 것에 있고, 그 명령에 대하여 베드로는 주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임의로 반응했다는 데 있습니다. 믿음이란 결코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주께 매여 순종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로 보면 이방인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단지 지옥 불을 달구는 장작더미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을 깨지 않는 한 이방 선교는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었다고 하지 말라는 꾸중 속에 이방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위에는 상당히 많은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슴에 품고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문화를 탓하고 환경과 여건을 탓하며 전통과 관습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주께서 가라 하시는데도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빠져 주의 선교 명령을 저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전파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주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 **황홀한 중에(10절)** : 한글 개역성경은 '비몽사몽 간에'로 번역함. 보통 '신비적 체험 상태'라고 표현된다. 이는 외적 감각과 의지 작용이 중지되고 생각이 내부로부터 시작되고 작용되는 상태를 일컫는다. 소위 '창조 황홀경'이라고도 불린다.

또 소리가 있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행 10:13)

Then a voice told him, "Get up, Peter. Kill and eat."(Ac. 10:13)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찬미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의 만나 2013년 2월

Copyright© 2013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강철형

집필진 | 한정민 문성수 양재웅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